



우파가 보는 한국의 좌파

“경로의존적 개혁을 추진해야”

식민지의 굴레를 벗어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건설'이고, 둘째는 '산업화'이며, 셋째는 '민주화'이다. 그러나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탄생한 수많은 '탈식민사회'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다행히도 한국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여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룩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각각의 과정을 좌파와 우파는 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선 '국가건설' 과정을 살펴보자. 좌파는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남한정부의 수립까지를 '미군정과 우파'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분단구조의 정착과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남북의 분단은 '냉전'이라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식민지배를 거치며 일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내부의 '좌우대립'이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는 '소련 및 좌파'의 역할이 '미국 및

우파' 못지 않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전개됐던 우파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던 이승만이 귀국하기도 전에, 좌파는 일제시대 지하에서 건설한 조직을 가동하여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미군정과 대립했다.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활동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내의 우파와는 달리 좌파는 지하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 후 상대적으로 친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의 상대적 우위는 신탁통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계기로 역전된다. 좌파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고 소련의 지침에 따라 하루아침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남한에서는 우파인 이승만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집권에 성공한다. 이후 진행된 '국가건설'

은, 일제시대 좌파와 대항한 경험이 있는 친일경력의 우파를 저버릴 수 없는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연이어 벌어진 6·25 전쟁은 남한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레드 콤플렉스'가 완벽하게 수용된 '반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음에는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을 검토해 보자. 60년대부터 시작된 남북간의 체제 경쟁은, 당시 열세에 있던 남한의 우파로 하여금 급기야 70년대에 들어 오면서 '유신'이라는

산업화 없는 민주화로는 제3세계 국가들처럼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비상체제를 만들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배경이 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가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우파에 의한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비판하던 학생운동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좌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독재에 저항했다. 80년 '광주'는 이러한 반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후 좌파가 주도한 민주화 운동은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등장한 중간계층의 광범한 지지에 힘입어 남한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본다면 좌와 우는 모두 한국 현대사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 셈이다. '국가건설'과 '산업화'가 우파의 몫이라면 '민주화'는 좌파의 몫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이러한 양시론(兩是論)을 근거로 두 진영이 역사의 누적적 전개를 무시하며 서로 우위를 주장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역사의 누적성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국가건설' 없는 산업화'라는 새로운 종속을 불러들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산업화 없는 민주화'를 추진한다면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피하지 못한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남한의 '상대적 성공'은 국가건설과 산업화 그리고 민

주화를 차례대로 이룩한 사실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물론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민주화'보다는 '산업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최근 충분한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좌파적 개혁을 몰아 부치고 있다. 그러나 '과피에는 능하나 파괴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건설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좌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한국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의 누적성에 기초한 '경로의존적 개혁'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것을 모두가 꼭 같이 나누면 결국 남는 것은 '하향평준화'일 뿐이다.

유석춘교수는 현재 계간 「전통과 현대」 편집위원이며 유교적 가치를 통해 한국사회의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고 평소 주장해 왔다. 대표적 논문으로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제도주의적 시각에서』가 있다.



유석춘
연세대교수·사회학